**데이비드 터너 박사, 마태
복음 강의 11A – 마태복음 24:32-25:46: 종말론적 담론**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올리벳 담화에 대한 두 번째 강의인 11a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4분 32초 부터 시작 하여 2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담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강의는 24:29부터 31까지에 대해 과거주의자와 미래주의자 중 누가 옳았는지에 대한 논의로 다소 갑작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래주의자들이 과거주의자들을 앞지르는 것 같지만, 과거주의자의 관점을 취하는 훌륭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올리브 산 담화의 예언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24:32부터 35까지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 측면의 은총적 또는 권면적 측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처음으로 설명하자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예언적인 말씀에서 실제적인 말씀으로 전환하십니다.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목표는 24장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받은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여름에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태복음 24장 32절). 그래서 예수님은 24장 33절에서 자신의 재림을 그 과정에 비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24장 3절에서 구했던 표적들은 봄에 나무에 싹이 트는 것으로 상징되며, 그분의 재림은 열매가 맺히는 여름으로 상징됩니다. 제자들이 봄의 표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여름이 가까왔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확실성은 24장 34절과 35절에서 강조되는데, 이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이 표적들을 지킬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뢰할 만함을 확증합니다. 지금처럼 비교적 평화롭고 번영하는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과 수고의 결실을 누리는 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갑자기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회의적인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베드로후서 3:3).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은 현 상태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 상태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데 반드시, 비록 속히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 자리를 내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절들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24장 33절과 34절에서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셨습니까 ? 이 표현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아니라, 그분의 재림을 예견하는 예비적인 징조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적 표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재림이 포함된다면, 24장 33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어반복이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진술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한 것을 굳이 강조하시거나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단지 예비적인 징조들을 가리킨다면, 징조들을 보는 것이 재림이 가까웠음 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은 타당합니다 .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용어는 "이 세대"입니다.

일부 미래학자들은 '세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거나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 있는 종말론적 세대를 지칭한다고 주장하지만, 투생과 월부르드 같은 주석가들이 주석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태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동시대 사람들을 지칭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구 사전을 꺼내 '이 세대'라는 용어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결론에 도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의 명확한 용법과는 상반되는 이 세대를 해석하는 쪽을 택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이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예고하는 예비적인 징조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징조들만을 지칭할 뿐, 재림 그 자체는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 70년 로마인들에 의한 성전 파괴를 포함한 그 징조들을 동시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에서 비유적이고 권면적으로 표현된 경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4:36-51에서 예수님은 24:32에서 시작하셨던 비유적이고 권면적인 강조를 이어가십니다. 이 구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36-42에서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두 번째 부분은 24:43-44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기치 못한 재림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세 번째 부분은 24:45-51에서 제자들이 스승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충실히 순종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노아 시대와 마지막 시대를 비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히려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4:42). 두 번째 부분은 자기 집에 도둑이 들 것을 모르는 집주인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제자들은 집주인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재림에 대비하라는 말을 암묵적으로 듣습니다(24:44 ).

세 번째 부분은 비유적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인은 자신이 없는 동안 종에게 수행해야 할 임무를 맡깁니다.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충실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착한 종(24:47)이고, 두 번째는 방탕한 행동으로 주인의 분노를 사게 되는 악한 종(24:50-51)입니다. 이 이미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죄악적인 생활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이 구절의 세 부분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고, 준비하고, 주인의 일을 분주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러한 비유적이고 매개적인 강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은 전 세계의 최신 소식에 따라 종말론적 경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일부 선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라는 개념 때문에 세계 사건들,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는 최근 사건들을 끊임없이 면밀히 살피고,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예언적 성취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거의 미친 듯이 찾아 헤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집주인이 집에 불을 켜고 전자 경보기를 켜 놓았을 때 도둑들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긴장 정도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면, 세계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번영과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며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종말론의 정확성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윤리적 문제이지, 추측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 구절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먼저 그리스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통 정교회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고수하고 그 결과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림 시기를 모른다고 주장하셨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과 마가복음 13장 32절의 평행 구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아버지께서만 이 세부 사항을 자신의 불가해한 계획 속에 간직하고 계시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선재하심과 신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분의 신적 속성들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21절, 18절, 요한복음 4장 6절과 19장 28절을 참고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16, 4:1, 12:18, 28. 누가복음 3:22, 4:1, 14, 18, 사도행전 10:38, 요한복음 1:32, 3:34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유혹을 받으신 후 천사들의 추가적인 사역이 필요하셨습니다 . 마태복음 4장 11절과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시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확언한 예수님의 진정한 인성을 강조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구절의 종말론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인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두는 분리의 언어입니다(24:40-42). 환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는 별개로, 환난 전 교회의 휴거 이론(24:29)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24:40-42가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는 휴거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여기서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지상 재림을 구분하는 용어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18절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10절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남겨진다는 표현은 모호합니다.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자면, 데려감을 당한 자들은 홍수에 휩쓸려 갔고, 남겨진 자들은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24장 38-39절, 1341절 참조 ). 그러나 2431절의 이미지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데려감 또는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장 12절 참조).

이 질문에 대한 더 나은 지혜는 이 질문을 본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즉 경각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경우 주석은 학생을 본문의 진정한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현학적인 탐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복잡성에 대한 지적 논쟁은 본문의 윤리적 지침에 대한 순종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해 논쟁하느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제 25장 1-13절에 나오는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와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의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와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알 수 없음을 이 담화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24장 3, 36, 39, 42-44, 50절, 그리고 25장 13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논제는 24장 36절에서 명제적으로 제시되었고, 24장 37-42절에서 노아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24장 43절 에서 예상치 못한 강도 , 24장 45-47절에서 선한 종, 그리고 24장 48-51절에서 악한 종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전에 보여준 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듯, 이 비유는 결혼 관습이라는 또 다른 친숙한 영역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신랑이 곧 도착하여 혼인 잔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신부 들러리 다섯 명은 어리석게도 등잔에 쓸 기름을 가져오지 않고 해 질 무렵을 대비했습니다. 반면 다른 다섯 명은 현명하게도 늦춰질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의 어리석음은 신랑을 놓치고 혼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두 번째 무리의 현명한 준비는 혼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지나친 비유적 해석으로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습니다.

결혼 잔치와 등불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을 보십시오.예수님께서는 특정 비유의 특징이 현실과 세부적으로 일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예를 들어, 13장 18-23절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37-43절의 가라지와 밀의 비유, 13장 49-50절의 그물 비유가 있습니다.그러나 이 비유의 경우, 예수님은 25장 13절에서 일반적인 결론만 내리십니다.예수님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많은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따라서 예수님이 도착이 늦어지는 신랑이고, 지혜로운 신부 들러리와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는 기민하고 게으른 제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이 충분히 분명해 보입니다.

신랑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민하게 준비하는 데 완벽하게 부합하지만, 믿는 자들의 휴거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기름을 성령과 동일시하려는 흔한 유혹에 넘어가거나, 구원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없다고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추측은 즐거운 지적 활동일지 모르지만, 25장 13절에 나오는 윤리적 의무, 즉 준비하라는 의무에서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신학적 속임수는 노아 세대가 임박한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게 했던 행위들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24:38과 29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들러리의 분별력 부족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어리석음 과 유사하며 ,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묘사합니다.

7장 24절에서 27절로 돌아가서, 24장 48절과 25장 5절을 비교해 보면 이 비유의 교훈이 악한 종의 교훈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재림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지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이 정반대 반응 속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무책임하게 과대평가했고, 주인이 일찍 도착한 것처럼 보여 불쾌하게 놀랐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들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는 것을 경솔하게 과소평가하여 그 때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종이 주인의 귀환에 태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노아와 집주인 세대 와 비슷합니다 .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창 24:36-44). 둘 다 경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들은 어떤 지연도 계획하지 않음으로써 극도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10장 22절, 13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4장 13절에서 강조됩니다. 이러한 상반된 오류들을 통해 교회는 예수님께서 즉시 재림하시거나 결국에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기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내하고 미래 사역을 계획해야 합니다.

교회가 주인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면 이 두 가지 의무가 역동적인 긴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과 3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제 달란트의 비유라고도 불리는 세 종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완전히 대칭적입니다. 보충 자료 44페이지에 있는 도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순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은 종들이 먼저 달란트를 맡게 되고, 그 후 그들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상징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반응에 대해 상을 주십니다. 따라서 5장 2절, 1장 5절, 2장 1절, 5장 2절, 그리고 한 종은 같은 순서로 세 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연속적인 장면들은 각각 앞 장면보다 조금 더 길어서, 마치 극적인 전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에는 악한 노예의 처벌에 가장 큰 강조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구조는 꽤 흥미롭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앞선 비유들이 경계심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비유는 경계심이 낳는 충실한 청지기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종들이 주인의 귀환에 놀랄지 여부가 아니라, 주인의 자원을 충실히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주인의 선물은 종들의 임무로 이어집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종들의 능력에 따라 자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25:15).

세 번째 종은 한 달란트만 받았으므로, 주인은 분명 자신의 능력이 앞선 두 종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달란트로 뭔가를 벌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섯 달란트를 받지 않았고, 다섯 달란트를 벌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벌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신부 들러리들은 자신의 일이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지만, 게으른 노예는 자신의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롬버그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부재하시는 동안 그분께 충실하다면, 그분께서 맡기신 기회와 능력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실함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 로마서 12장 6절 이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7장 7절, 12장 4절 이하,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 디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같은 구절들을 참고하십시오. 깨어 있으려면 노력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익숙한 상투적인 표현이 여기에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시도하고, 하나님께 큰일을 기대하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재물을 마치 흔들리는 투자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짓 변명으로 게으름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됩니다. 갈랜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날짜를 제대로 알았는지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잘 지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비유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담화인 감람산 담화는 마지막 부분을 최후의 심판으로 구성합니다. 이 담화는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5장 31절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그분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주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대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시간 순서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시기를 다룹니다.

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4:29부터 31까지는 묵시록적인 언어와 우주적 이미지가 가득 합니다 . 이 구절은 훨씬 더 산문적이고 명제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비유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25장 32절하반절과 33절에 나오는 은유적 요소들이 본문 전체에 걸쳐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반(半) 비유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산문적 서사로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이 서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는 심판의 배경을,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는 의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내용, 25장 41절부터 45절까지는 악인들이 영원한 불에 쫓겨나는 내용, 그리고 25장 46절에서는 카이아스적 결론을 다룹니다. 저희는 보충 자료 45페이지에서 이 매우 대칭적으로 잘 구성된 비유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페이지 상단 절반에는 카이아스 구조를 보여주는 더 단순한 개요가, 페이지 하단 절반에는 왕이 양과 염소를 대칭적으로 대하는 진행 과정이 표시되어 있으며, 결론에서는 먼저 염소의 운명을 다루고, 그다음에는 양의 운명을 다루어 전체 단락의 기본적인 카이아스 구조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은 24장 32절부터 25장 13절까지의 경계와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신실함에 대한 교훈에 연민의 교훈을 더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반응으로 주입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연민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했다면,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가치는 깨어 있음, 신실한 섬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5:47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지만 동료 제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순회 설교자들에게는 특히 25:35과 36에 언급된 유형의 사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10:40과 요한복음 3장 5-8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지만 순회 설교자들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시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5장 11절, 10장 18절, 22절, 25절, 그리고 23장 34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된 사울에게 물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의 백성과 매우 밀접하게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5장 35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박탈당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심오한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세부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해석적 의문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이 부활한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에 살아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심판의 기준은 환난 기간 동안 유대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투생과 월부르드, 그리고 이전의 세대주의 주석들을 참고하십시오. 본문의 맥락과 언어가 이러한 해석에 부합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현대 세대주의의 종말 심판 체계처럼 정확하게 해석하셨는지는 의문입니다. 좀 더 주해적인 문제는 이 내 형제자매들 중 가장 작은 자의 정체, 즉 문자 그대로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의 정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심판을 위해 모인 민족들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들이 받은 빛 에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장 27절에서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일축하시는 듯합니다. 사회 중심적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일리 스터디 바이블의 바클레이, 베어의 주석, 그리고 데이비스와 앨리슨 모두 그러한 견해를 취합니다. 이 구절을 자주 인용했던 테레사 수녀의 믿을 수 없을 만큼 희생적인 삶을 여기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9장 13절과 12장 7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동생들이 일반적인 궁핍한 사람들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이 구절이 종말론적 환난 동안 이방인들이 유대인 남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세대주의적 관점은 아마도 이 구절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타인에 대한 자비의 행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견해는 마태복음에서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장 40절과 4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12:46-50.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거나 축소하는 듯합니다. 5:22-24.

그리고 47절입니다. 7장 3절부터 5장 12절, 48절부터 50절, 18장 15절, 21절, 35절입니다.

23:8. 28:10. 이 모든 구절들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그분을 믿는 자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들을 감히 영적으로 파멸 시켜서는 안 됩니다 .

18:6. 그리고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18:21, 35.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욕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형제자매이며, 같은 가족 안에서 자매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20:20~28. 그리고 23:8~10.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리스도인인 것, 아마도 복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이며 여기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자비를 받는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은 또한 영원한 형벌 교리라는 경이로운 문제 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 잃어버린 자들의 멸절 교리가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546년경에 영생과 영원한 형벌이 병치되어 그러한 개념은 신학적 희망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잃어버린 자들의 운명에 대한 마태의 묘사는 불길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3:12, 13, 40, 50, 18:8, 9, 25:41, 46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8, 베드로후서 3:7, 유다서 7절을 비교해 보세요. 또한 요한계시록 14:10, 19:20, 20:10, 20:14, 15, 21:8도 비교해 보세요. 다른 곳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의 운명이 깊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을 살펴보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6절, 그리고 유다서 1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의 끔찍한 공포가 이 두 가지 은유를 통해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이제 요약과 전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일깨워 줍니다. 동등한 학식과 헌신을 가진 성경 교사들이 구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때,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더 나아가 가르침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성경의 예언이 단순한 예견이나 점술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1절까지만 미래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며, 미래적인 부분조차도 윤리적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네 가지 설교는 모두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가르침을 종말론으로 마무리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지상 모든 민족의 동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하신 가르침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장엄한 가르침이 이제 마무리됨에 따라, 사건들은 26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는 쪽으로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시작하실 것입니다.